



더 편리한 관람, 더 짜릿한 스릴... "F1이 온다"



지구촌 스피드 축제 F1 코리아 그랑프리(10월 4일~6일)의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85개국 약 6억명의 시청자가 지켜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F1 한국대회의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더욱 편리해진 대회 관람=3회 연속 16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F1 한국대회는 올해 더욱 편리해진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준비했다.

F1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교통 혼잡 완전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KTX 5편, 임시 항공기 3편, 고속노선버스 하루 14대 등 증편과 함께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톨게이트에 임시 하이패스를 설치해 차량 흐름을 개선했다.

또 주진입로인 남해고속도로(영암~순천)와 목포대교에서부터 안내 유도 요원을 배치해 경주장 주변 혼잡을 미리 방지할 예정이고 경주장 주변 기반 시설 확충과 환승 주차장 및 버스 전용차로 운영 등 다양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신호 시스템 연동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고 대불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임시 휴무 및 차량 2부제 운동 자발적 참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숙박분야는 호텔급 숙박시설과 한옥민박, 캠핑촌 등 대체 숙박시설 등을 확충하고 호텔, 식당 등 F1지정업소 298개소를 운영하여 쾌적한 숙박환경과 친절하고 위생적인 모범음식업소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숙박시설을 찾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F1 조직위원회는 인터넷 숙박정보 안내와 교통정보시스템 누리집(<http://f1lod.koreangp.kr>)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회기간까지 국내, 외국인인 상대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 잔여 객실 파악과 외국인 숙박, 교통안내 등을 돕는다.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 기대=올해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었다.

대회 조직위는 참가하는 팀들의 장비 이동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22대의 F1 머신 및 주요 정비용품은 직전 대회인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끝난 뒤 부품 형태로 분해돼 전세계 6대로 인천공항을 통해 운반

될 예정이다. 또 물류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광주·목포·부산 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F1 대회 관련 물품들이 제때 통관되도록 24시간 신속 통관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회도 더욱 박진감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F1 그랑프리에는 11개 팀에서 2명씩의 드라이버를 각 대회에 내보내 스피드를 겨루고 있다. 지난해 12개 팀에서 하나가 줄었다. 1위는 25점, 2위는 18점 순으로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며 이 점수를 합산해 한 시즌의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팀) 순위를 가린다.

F1은 총 19개 대회가 열리며 한국 대회는 전체 19라운드 가운데 14라운드다. 지난해에는 일본 그랑프리에서 이어 열렸지만 올해는 일본 대회보다 1주일 먼저 개최 시기가 잡혔다.

오는 8일 이탈리아 그랑프리 끝으로 올해 유럽 일정이 끝나고 20일 싱가포르 대회부터 한국, 일본, 인도, 아부다비로 이어지는 '아시아 스릴'이 시작된다.

현재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올해 11개 대회 가운데 5승을 휩쓸어 197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페텔이 올해도 종합 우승을 차지하면 4년 연속 왕좌를 지키게 된다.

페텔 외에는 2010년 대회 우승자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 루이스 해밀턴(영국·메르세데스),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 등이 정상을 놓고 다툰 전망이다. 팀 부문에서는 레드불이 312점으로 235점의 메르세데스, 218점의 페라리를 앞서 선두를 질주하는 중이다.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지난해 월드스타 사이의 축하공연으로 인기몰이를 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공군 블랙이글의 화려한 에어쇼를 준비하고 있다. 또 열기를 북돋아 줄 K-POP공연과 2PM과 씨스타 특별공연 등도 곁들여진다. /요광록기자 kroh@kwangju.co.kr

KTX·버스·항공기 증편...임시 하이패스 설치
호텔·캠핑장·식당 등 지정업소 298개소 운영
11개팀 2명씩 레이스...페텔, 197점 현재 1위
블랙이글 에어쇼·K-pop 공연 등 행사 풍성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성역
북고당 한약방
광송간도로
새우민방
한약이리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